

# “가계파산 가능성 높아”

### 韓銀 보고서, 가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급등세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이나 금융자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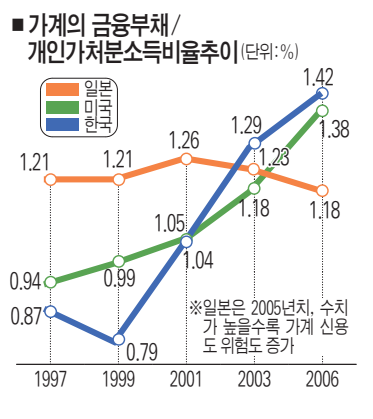
3일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가용소득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42%로 2005년 1.35%에 비해 0.07%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5.6%로 금융부채 증가율 11.6%의 절반 수준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이 비율은 1997년 0.87%였으나 2000년 0.91%로 높아졌고 2002년 1.28%, 2003년 1.29%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이 수치는 2002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일본을 추월했으며 2006년 미국의 1.38%, 2005년 일본의 1.18% 등과 비교할 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의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미국,



일본에 비해 훨씬 떨어지고 있음은 보여준다.

또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도 2005년 7.78%에서 지난해 8.64%로 높아졌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7.00%, 일본의 4.71%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상환 능력 지표는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다.

한편 실물자산 처분 없이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6년 44.4%로 전년 말(43.2%)보다 높아져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보복폭행’ 경찰수사, 김승연 ‘방패’ 뚫을까

## 영장 신청 앞서 물증찾기 ‘박차’

### 오늘 사전영장 청구...“2년전 논현동 사건과 병합처리 가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3일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보강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관계자는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피의자·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조사 등 전반적인 수사기록을 검토중”이라며 “김 회장 부자와 경호원들이 청계산에 끌고 가 폭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해 물증을 조만간 확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북창동S클럽 내 CCTV를 복구 중이며 김 회장의 옷과 신발, 벤츠승용차 시트 등에서 채취한 흙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청계산의 흙과 같은 성분인지 검사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청계산 공사현장에 끌려 갔다는 당일 시간대에 청계산 인근 기차역에 기록된 휴대전화 송수신번호 목록에 한화측 관계자의 번호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날 중 자료분석을 끝낼 계획이다.

경찰은 김 회장 차남의 친구 A씨가 사건 현장에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3자라고 보고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남 취진이 너무 많이 몰려 중단했던 피해자 현장조사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주상용 경찰청 수사국장은 3일 김승연 회장이 2년 전 논현동에서 술집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데 대해 김 회장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국장은 이날 김 회장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

아 “논현동 사건을 언론을 통해 어제 처음 알았는데 수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사건과 병합해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논현동 사건으로 김 회장을 소환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피해자 진술만 받을 수는 있지 않느냐”라며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경찰이 김 회장의 화려한 변호인단의 ‘방패’를 뚫고 김 회장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부인(不認)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도지사가 결단내려라



최재호

체육부 차장

“거듭 할말이 없습니

다”  
지난달 26일 강진도민 체전 기간 체육회 간부 살해사건이 발생한 뒤 전남 체육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민에게 비쳐질 체육인들의 모습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다.

축제의 마당에서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졌다는 점 때문에 감히 입을 뗄 수 없지만 특히 사람이 죽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할말을 잃은 모습들이다.

그때도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론에 대해 체육인들은 한결같이 전남체육회 조직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짚어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체육회 운영을 총괄하는 상임부회장 자리가 ‘육상육’으로, 사무처장 자리와 이원화된 것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다음은 체육을 잘 모르는 퇴임 행정관들이 부회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는 체육이나 조직운영에는 문외한 수준인 정치인들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 전횡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체육계 내부의 분열과 대립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직을 장악한 인사가 권한을 휘두르다 보면 학연, 혈연, 지연 등으로 줄을 서고 파벌이 조망될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과거 전남체육회에 부회장과 사무처장 간 드러난 갈등이 있었느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두 세력 간 보이지 않는 일력과 암투가 산재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체육인들은 상임부회장 자리는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 체육회 가운데 전남과 광주, 제주만 상임부회장 직책을 두고 있고 전북과 서울, 경남은 비상근으로 상징적 존재인데, 그렇게 필요했다면 타 시·도에서 상임부회장 자리를 폐지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체육인들은 이번 사건 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체육회 조직문화에 한말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전남도체육회장인 전남도지사뿐이다. 도지사가 조직의 운영을 위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고 내년에는 전남에서 체전을 개최하게 된다. 과거 구가했던 선진 전남체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lion@kwangju.co.kr

# 검찰, 장동익 前 의협회장 소환

### 횡령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정형근 의원도 조만간 조사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3일 오전 9시30분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협회비와 회장 관공비, 의정회 사업추진비 3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협회 간부 등에 의해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고 있다.

또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관련 녹취록 발원에 대한 진위 여부와 작년 7월 전공의협의회장 선거를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로 고발된 또 다른 사건 등의 사실 관계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직무를 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의정회가 사용한 운영자금 6억4천여만원 중 증빙자료 없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2억7천여만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첨부된 나머지 액수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모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 의원이 본인에 대한 ‘뇌물죄 성립 가능성’ 등의 보도와 관련해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해 병합수사하고 있다”며 “정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정 의원의 추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남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들 협회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정 의원에 대한 후원금 제공 여부 등을 물었다. 연합뉴스



동해선 철도 시험운행 선로 점검

오는 17일로 예정된 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을 앞두고 동해선 남측구간 선로점검이 실시된 3일 선로점검반이 점검작업을 마치고 제진역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7일로 예정된 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을 앞두고 동해선 남측구간 선로점검이 실시된 3일 선로점검반이 점검작업을 마치고 제진역에 도착해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盧대통령, 푸틴에 TKR-TSR 현안 논의 친서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한러경협과 한반도 중 단철도(TKR)-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계사업 등 양국 현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3일 알

려졌다. 친서는 지난달 25일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장례식 조문사절로 파견된 한명숙 전 총리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친서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며 “다만, 푸틴 대통령에 보낸 친서 내용이 양국간에 주고받고 있는 과거 현안 논의 수준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 품질은 100% 가격은 30%

### ◆ 배터리닥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놀라울까요? ◆ 적용범위



배터리 성능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충전 불량이나 수명감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판에 생긴 황산염 때문입니다. 배터리 닥터는 프로벳(Probat)과 프로차지(Procharge)라는 최첨단 과학으로 황산염을 제거하고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폐배터리를 새것과 동일한 성능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



자동창고 및 물류 배송센터 ▶



### ➔ 기대효과

- 배터리 교체비용의 2/3 이상의 원가 절감
- 사용중인 배터리에 적용시 2배 이상의 수명연장
- 개선효과로 인한 생산성 향상
- 악성 폐기물 배출 감소 및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효과

### ◆ 배터리 닥터, 그럼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버스, 택시, 트럭, 골프카트, 지게차, 견인차, 청소차, 운반차, 공항 및 선박, 물류센터, 자동창고, 백화점등 전동장비,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의 교체비용이 드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불황기에 배터리 값만 아껴도 회사 살림이 확 핏니다. 지금 배터리닥터를 만나 보십시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껴 드리겠습니다.

### ◆ 주요 실적 ◆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태정공장), 한국 BASF, 호남석유화학 전동지게차 현장투입의 108개 업체 현장투입 가동중

bd (주)배터리닥터 | 총판 모집 | 상담전화 02)3664-1066

# 독일카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처 로보크리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 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 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 밑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인력, 최저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70개국 우수디자인상 수상

Hit 3000 로봇청소기

Hit K55 전기 빗자루

Hit VR6100 전동청소기

Hit SC 922 스팀 청소기

Hit SC 1122 디럭스 스팀 청소기

Hit SC 1502 디럭스 스팀 청소기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